

Amitav Acharya,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Worlds."

Andrew Phillips, "Global IR Meets Global History: Sovereignty, Modernity, and the International System's Expansion."

John Darwin, *After Tamerlane: The Rise and Fall of Global Empires, 1400-2000*

Marshall Hodgson, "The Interrelations of Societies in History."

Sanjay Subrahmanyam, "Connected Histories: Notes towards a Reconfiguration of Early Modern Eurasia"

Victor Liberman,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 800-1830*

- Global history의 두 가지 접근법: comparative approach와 connective approach. connective approach 중에서도 지역간 상호교류 중심이 아닌 보다 dense한 상호작용 ⇒ 동시적인 발전,共进화

Andrew Phillips:

- **vanguardism** 비판. 서유럽이 근대적 국제체제의 모태, 유럽 제국주의가 베스트팔렌 체제 확산의 산파. 현실주의: (군사적) 경쟁을 통한 생존과 도태, 영국국제사회학파: 서구 규범의 확산과 수용. conformity. 사회학적 제도주의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모방적 정당화 mimetic legitimation. 이에 대해 global history는 근대국제의 polycentric character, 유럽-비유럽의 permeability, historical agency의 pluralism을 강조.

- The rise of **hybrid imperial hierarchies** as a key constitutive characteristic of modernity and the legitimate historical focus of Global IR: 서구 제국주의와 토착 세력의 상호작용을 강조. 유럽의 비유럽 진출은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비유럽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활용.

※ Kenneth Pomeranz의 *Great Divergence* 이후 서구와 비서구,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말 이후라는 견해가 '상식화'됨. 최근에는 서구와 비서구의 군사적 격차 역시 상당히 늦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제기됨. J. C. Sharman, *The Empire of the Weak: The Real Story of European Expansion and the Creation of the New World Order*(2019); J.C. Sharman, "Myths of military revolution: European expansion and Eurocentrism"(2017); Tonio Andrade, *The Gunpowder Age: China,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in World History*(2016).

- 영국의 인도 진출 사례: "There was no British blitzkrieg in South Asia." 동인도회사는 여러 토착 세력과 경쟁. 이 과정에서 무굴제국의 약화를 틈타 그 수가 증가한 armed, part-time peasant soldiers를 체계적으로 활용, EIC의 독점적인 인적자원화. - 'institutional conversion'. 또한 지역종교기관 대한 후원을 통해 영국의 인도통치를 정당화 - 'customization'. The Indian Ocean as a distinct regional world: "originally weak Westerners progressively converting local institutions and customizing indigenous normative resources to undermine hierarchies and build new ones"

**John Darwin:**

After Tamerlane: 티무르 제국의 의미. 유럽과 이슬람 미들 유라시아, 동아시아의 지리적 구분을 넘어 제국을 건설하려는 마지막 시도. 힘의 균형이 유목제국에서 정착민 국가로 이동. 티무르 제국의 파괴와 약탈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비해 미들 유라시아의 약화. 동서 교류가 해로 중심으로 이동.

“Before 1800 what really stood out was not the sharp economic contrast between Europe and Asia, but, on the contrary, a Eurasian world of ‘surprising resemblances’ in which a number of regions, European and Asian, were at least theoretically capable of the great leap forward into the industrial age.” 물론 1870-1940년 유럽이 진정한 global economy(자본과 식량과 공산품이 대량으로 교환되는)의 등장을 주도했으며, 전 세계를 식민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일방적인 ‘provincializing Europe’은 곤란.

The center of gravity in modern world history lines in Eurasia ... The shifting balance of wealth and power between Eurasia’s main elements .... Europe’s annexation of non-Europe is only part of this Eurasian history, and depended heavily upon Eurasian developments.

Occidental Breakout(1480-1620): 제한적인 영향만을 가짐. 서구가 발흥하는 동안 비서구는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 이른바 ‘대발견의 시대’에 지구 다른 편에서는 명제국의 통치체제가 공고화되고, 오스만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으며, 사파비드가 이란을 통합했고, 이슬람이 동남아시아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1519년 북인도에 무굴제국이 등장. “The Old World must be called in to balance the New.”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아시아와 아메리카로의 진출 시기: 러시아(북아시아 삼림지역으로 팽창), 오스만 제국, 사파비드, 무굴제국, 명제국★

Early Modern Equilibrium(1620-1740): 1757년 영국의 벵골 정복 이전까지 유라시아 각 제국에서 국가건설과 문화혁신의 시기.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누리지 못함. 유럽의 maritime sector의 규모와 영향력은 제한적. 러시아의 지속적인 팽창, 동아시아에서 명청교체,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체제의 성립, 오스만제국은 전성기를 지나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음. 무굴제국의 전성기, 1700년 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의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통치.

Eurasian Revolution(1750-1830): 균형의 붕괴. 유럽의 부상. 다만 유럽 부상의 주된 이유는 상업적 성공이나 과학혁명 등에 있지 않고, geopolitical change에 있었음. 유럽에서는 7년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 프랑스의 패배, 7년 전쟁은 식민지에서의 대립이 전 유럽의 전쟁으로 확대된 첫 번째 전쟁. 전쟁은 유럽, 아메리카 대륙, 인도 등지에서 벌어짐. Plassey 전투(1757년). 프랑스의 패배로 영국이 대서양경제를 지배, 1763년 이후 유라시아의 균형

이 깨짐, 러시아는 오스만제국으로부터 크림반도 합병함으로써 흑해 진출. 무굴제국의 붕괴. 영국의 공세에 의한 것이 아닌 Maratha Confederacy와 같은 지역 세력들과의 경쟁에서 패배.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벵골을 거점으로 삼아 세력 확대, 15만 명의 현지인으로 구성된 병력 보유.

The Great Divergence: 1. 아메리카와 호주 등 남태평양 지역으로 유럽인의 대규모 이주. Neo-Europe의 등장. 2. 영국은 우월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독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비유럽과의 무역을 지배. 3. 인도의 지정학적 지각변동. 무굴제국의 붕괴,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의 첫 단추.

#### Hodgson, Subrahmanyam, Liberman:

Eurasian coordination: 근대 초 유라시아를 통틀어 유목민족 위협에 노출된 지역(중국, 인도)과 보호된 지역(유럽,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본)이 유사한 발전양상을 보임.

Rimlands: 15세기 말/16세기 초~18세기 말/19세기 초의 시기 동안 정치적, 영토적, 문화적 consolidation.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 행정체계의 효율성 증대, 문화적 통일성의 증진. 중심부로부터 지식과 문화를 수입. secondary state formation. 공통적으로 인구증가, 생산력 증대, 시장의 발전을 경험. 1. sustained movement from local fragmentation to political consolidation. 2. a drive towards centralization and the growth of coercive state apparatus. 3. standardization of culture and ethnicity. 4. commercialization and military revolution. ① administrative centralization ② firearms-based warfare ③ rising literacy and textuality ④ more popular literature ⑤ wider money use ⑥ market specialization ⑦ more complex international linkage

Random coincidence? Eurasian coordination을 촉진한 요인: 1. High cultural transmissions from core civilizations to secondary sites. 2. Disease. 3. Climate. 1240-1450, 1580-1680(소빙하기) \* Geoffrey Parker,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and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4. Warhorse revolution(10세기~12세기). 5. Mongol and Inner Asian Influences. 6. Commerce as a Multifaceted Coordinated Agency - 특히 아메리카 銀의 전 세계적 순환 7. 화약무기. 8. cumulative political expertise and parallel institutional initiatives. 9. Intellectual synergies.

Exposed regions(중국과 인도): 정치적, 영토적, 문화적 consolidation이 일어났나든 점에서 rimlands와 동일. 다만 유목민제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 발전의 chronology, 물리적 크기에서 차이를 보임. 유목민족으로부터의 위협은 거대한 규모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몽골의 위협이 없었다면 중국 북부와 남부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 청과 무굴제국은 비교적 소규모의 유목민족 출신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짐. primary civilizations & secondary civilizations: Not all exposed-zone societies developed primary civilizations, but all societies that developed primary

· civilizations lay in the exposed zones.

rimlands와 exposed zones의 차이점: 1. The protected zone was not occupied for any substantial period by peoples from inner Asia, whereas political development in China and India from 1000/1200 was increasingly dominated by such peoples; 2. States appeared in the protected zone 700 to 1,300 years later than in North China and North India. 3. In most protracted-zone realms modest scale joined sustained interstate competition to favor cultural integration more readily than across India, and accelerating administrative centralization more readily than in either China and India.